

〈丙子日記〉의 隨筆的 性格

朴 敬 伸

I. 序 論

- Ⅱ. 깊이 있는 체험과 성실한 삶
- 法度를 重視한 大家집 부인
 - 따뜻하고 온화한 인간미
 - 恨많은 여인
 - 낙천적이면서도 끈질긴 성격

III. 문학적 표현

- 眞率한 표현
-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필치
- 적절한 인용과 비유

IV. 結 論

I. 序 論

본고의 논의 대상인 〈丙子日記〉는 1989년 10월 30일에 비로소 그 자료가 공개되었고, 그러니까 자료공개로부터 아직 채 2년도 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그 사이에 겨우 필자에 의해서 자료소개를 위주로 한 논문이 한 번 발표된 적이 있었을 뿐¹⁾ 그 외에는 아직 이렇다 할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²⁾

그러나 이 작품에 대한 논의가 그다지 활발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작품이 자료적 가치가 적다거나 문학적 가치가 높지 못하기 때문은 결코 아니라고 믿는다. 단지 자료가 공개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자료 자체도 비교적 널리 알려졌다고 하기에는 곤란한 지방의 향토지에 실렸기 때문에³⁾ 世人의 주목을 받기가 어려웠고 또한 자료 자체가 상당

1) 拙稿; 〈丙子日記〉研究. 국어국문학 제104호. 서울: 국어국문학회. 1990. 12. 31.

2) 필자와 전형대 교수에 의해 원문의 활자화 작업과 역주 및 원문 영인작업이 진행되어 곧 간행될 단계에 있으며 이 책이 간행되면 이 작품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을 참고로 밝혀둔다.

히 방대한 양일 뿐만 아니라⁴⁾ 기록된 지 이미 350여년이 지났다는 사실, 그리고 내용이 개인적 일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필자는 앞선 논문에서 이 작품의 書誌, 解題, 작자 및 연대, 작품의 構成, 意義 등을 이미 간략히 논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논문은 이 작품에 대한 공식적인 첫 논의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로 자료 소개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紙面도 제한되어 있었던 관계로 작품의 구체적 분석은 後稿로 미룬 바 있었다.⁵⁾ 따라서 이 논문은 앞선 논문의 후속작업으로 이 작품의 수필문학적 가치를 구체화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되는 것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작품이 일기라는 특수성을 가진 수필문학 작품이라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인적인 일기는 수필문학의 한 갈래로 분류되는 것이지만 다른 수필문학의 갈래들에 비해서 허구성이 개입될 소지가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학 작품으로서의 개인적 일기가 가지는 가치는 작자가 얼마나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인생 체험을 하였는가 하는 문제와 작자가 그 체험을 얼마나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느냐 하는 두 가지 사실에 의해서 주로 그 문학적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작자인 남평 조씨의 성실하고 깊이 있는 체험과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 되어 나타난 문학적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이 작품의 수필문학적 가치를 논하기로 한다.

3) 이 작품이 공개된 것은 충남향토사학회에서 간행한 〈향토연구 제6집〉(1989. 10. 30)에 서였다.

4) 이 작품은 표지 1장, 본문 144면으로 되어 있는 手澤本이 유일본으로, 이 책은 每面 평균 21字 19行을 유지하고 있는 100面과, 每面 평균 15字 19行을 유지하고 있는 44面(본문의 77面부터 120面까지)으로 되어 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유명한 수필문학 자료인 〈山城日記〉(낙선재본)이 每面 평균 15字 9行을 유지하고 있는 150面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분량을 단순 비교한다면, 〈山城日記〉(낙선재본)이 약 20,000餘字의 분량이고 이 작품은 약 52,000餘字의 분량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山城日記〉(낙선재본)의 2.5배에 달하는 양임을 알 수 있다.

5) 拙稿; 앞의 논문. 앞의 책 177面.

Ⅱ. 깊이 있는 체험과 성실한 삶

1. 法度를 重視한 大家집 부인

이 작품의 작자는 현감을 지낸 조경남의 딸이자 市北 南以雄의 부인으로 후에 정경부인으로 봉해졌던 南平 曹氏이다. 市北 南以雄이라면 이 팔의 난을 평정하는 데에 공을 세워 春城君에 봉해졌고 병자호란 때에는 仁祖를 남한산성으로 호종하였으며 병자호란 후에는 宰臣의 자격으로 소현 세자와 봉림대군을 심양으로 수행하여 약 1년반 동안 역류되었다가 귀국 후에는 대사헌, 한성판윤, 예조판서, 형조판서 등의 要職을 두루 역임하였고 좌의정에까지 올랐던 당대 정계의 巨木이었다. 따라서 작자인 南平 曹氏는 법도를 생명처럼 숭상하던 士族의 집안에서 성장한, 당대의 당당한 大家집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당대의 대가집의 살림살이란 그 규모도 크고 奉祭祀, 接賓客은 물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재산이나 종들의 관리도 엄청난 일이었던 만큼 그 모든 일을 관장하는 대가집 부인의 역할이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병자호란이라는 크나큰 전쟁의 와중에서 남편을 멀리 심양으로 보내고 혼자서 피난지를 전전하면서도 작자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법도에 맞추어 대가의 살림살이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치밀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작자가 그만큼 법도에 젖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이옹의 오랜 知己였으며 당대의 文衡을 지냈던 趙納은 남이옹의 碑銘에서 작자인 남평 조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기록을 통하여 당당한 대가집 부인으로서의 작자의 풍모를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가르침을 받들어 부모에게 효성스럽고 남편에게 공손하였으며 움직임이 반드시 예법에 맞아서 집안이 항상 엄숙하였던 것이며 ……〈중략〉…… 그 죽음에 이르러서는 서자와 첨자들도 모두 친어머니의 상을 당한듯이 슬퍼 곁하였으니 그 어짐을 가히 알 것이다.⁶⁾

6) 〈국조인물고〉 762면. 남이옹조. 번역은 필자.

이와 같이 예의와 법도가 몸에 밴 대가집 부인으로서의 작자의 모습은 작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

○망일 청 씀의 하늘 신선 그분 사름이 빙 고른 거술 투고 남네
와 그 사름들이 신선 그린 것 고더라 빙예 오루라 흐여놓 남편내 겨
시다 호니 그 사름이 빙가온대 당을 티고 오루라 흐여놓 올라 말호니
그 겨집은 머리를 조지고 부치는 오술 낑고 관 고른 거술 스고 남편
내 눈 누른 당삼 고른 거술 낑고 굴왓 고론 거술 흔드기는 듯 쟁거
눌 무로니 그 겨집이 닐오더 며는 내의 당벼라 흐고 내 닐오더 칙
네 비단을 만히 뻔다 호니 올훈가 호니 뿌려 흐면 흐로 훈 필도 나마
뿌되 주조 뿌기로 아니 흐누니라 흐고 내 닐오더 성명을 드러지라 흐
니 그 신선 고론 겨집이 닐오더 나는 설운이로라 흐고 시절 흥망이
나 사름의 당단슈유를 무루려 훈 모티에 석두루니 흔 씀이니 고아코
씌여 그 사름의 면목과 니본 거술 완연히 싱각호니 분명호미 상시 고
투니 고장 고이마다 주식돌의 말을 흐니 자내 주식돌이 이 무 모슴
성 소리 활뽀는 고욤아라 인누니라 호더 그 말을 채 몽드루니 상시
쉼은 아무 일도 싱각을 몽호더 잇다감 이런 쉼은 무흔 분명하고니
치디 아니터라 나죄 제호신후 다 드러오시다(무인년 8월 15일)(띄
어쓰기 및 밑줄 필자, 이하 같음).

이 기록은 작자가 꿈속에서도 男女有別을 따질만큼 법도가 몸에 밴 대가집 부인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꿈속에 배를 타고 내려온 칙녀가 배에 오르기를 요구하였으나 그 배에 칙녀의 남편인 견우가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분이 계셔서 배에 오를 수가 없다’고 거절하고는 마침내 장막을 쳐서 견우가 보이지 않게 된 후에야 비로소 배에 오른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생시도 아닌 꿈속에서, 그것도 보통 사람도 아니고 천상의 神으로 알려져 있는 견우에 대해서도 남녀유별을 따져야 했던 것이 이 작품의 작자였다. 그리고 이 때 이미 작자가 예순을 훨씬 넘긴 나이였다는 사실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이러한 법도는 단순히 이념으로 주입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몸에 밴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몸에 벤 법도는 집안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일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나서 무엇 하나 빈틈 없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근거를 남기려는 일종의 기록벽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2〉

◦ 초이 청 벗고개 는 집종 여덟 명씩 부처조차 열히 쏘 가다 일 서말디기로 아이 설흔이 뛴다(무인년 5월 2일)

〈3〉

◦ 집삼 청 씀이 하 번잡하니 줌이 편티 아니하니 글언가 시브다
집종 여섯 명씩 일 가다 류이 류이 강릉 가더니 오다 우케 넉 섬의
머육 백열날곱 등 대구 삽십육 전의 유진 머육 스무 등 쇼수는다 드
리고 대구 설흔 머육 백설흔 등 륙이 맛다다 시야이 턴동백넉하고 비
거루기 오다 밥등 후의야 그치다(무인년 5월 13일)

인용문 〈2〉는 벗고개에 있는 논 열서말지기를 정수라는 집의 종 夫妻와 또 다른 종들까지 열 사람이 가서 매었다는 사실과 그 논의 초벌 김매기를 하는데 사람이 모두 서른 명 들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인용문 〈3〉의 내용은 그 정도보다 더 치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층 이와 측이라는 종이 강릉에 가서 벼 석 섬에 미역 백열일곱 등, 대구 서른 여섯 마리를 받아왔다는 사실과, 그래서 전에 남아 있었던 미역 스무 등과 합쳐서 미역은 백서른일곱 등이 되고 대구는 서른여섯 마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미역 백서른 등과 대구 서른 마리는 죽이가 맡아 보관하고 끝다리로 남은 나머지 미역 일곱 등과 대구 여섯 마리는 집에다 들여놓았다는 내용이다.

2. 온화하고 따뜻한 인간미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작자가 이렇게 법도만 앞세우는, 빈틈 없고 딱딱하고 고지식한 인품의 소유자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단이다. 만약 그렇

다면 우리는 이 작품에서 그렇게 큰 감동을 얻지는 못할 것이 거의 틀림 없을 것이다. 작자는 그렇게 법도가 몸에 밴 대가집의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온화하고 따뜻한 인간미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감동을 느끼는 것이다.

〈4〉

◦ 초팔 우 슈원 선탏이 녹화 남진 오니 게 종 아하 아오라 여덟
이 피로하고 살 의지 업서라 하니 고이업다(무인년 2월 8일)

〈5〉

◦ 초구 대과 디내웁고 심양서도 성각호시거니 설워호노라 길난 후
세 번 쁨의 넝감 보웁고 어제도 쁨의 보오니 서울 유뛰나 나완눈가
교드나 내눈가 부라노라 선탏이 오눌 가고 보리뻐 니 말 무명 혼 필
주어 놓거나 헤고 보리나 갈라 하다(무인년 2월 9일)

인용문 〈4〉와 〈5〉는 살 의지가 없다고 찾아와서 하소연 하는 종이 불쌍하고 가엾어서 보리씨와 무명을 줄 수밖에 없었던 작자의 따뜻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음력 2월이었으니 보릿고개는 눈앞에 닥치고 전쟁이 갖 끝난 후이니 서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을 것인가 하는 것은 능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자신도 피난지에서 어렵게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처지이지만 종들의 가엾은 처지를 외면하기에는 작자는 너무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바탕에는 상전과 종이라는 사회적 신분관계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따뜻한 인식과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간파할 수 없다.

〈6〉

◦ 이십수 청만우 돌십골 오려는 집종 노비 여덟 가다 오후에 은봉
이 오니 조별제 수십여일이로되 학열왕느증과 별두려 더 구미티 구
모 나게 헤여디다 하니 구심이 고이업다 덕남이 서울가 너러오니 푸
싱이 뿐것 혼 필 마전하니 몬져 오고 청배집 혜아어의 뵈 뿐것 가져

오다 난리 나갈 제 몸의 브쁜 것만 디녀나서 너산 가의취락 면화로
쉼나히 여러 필·나코 기령 면화 가져다가 짙샵들을 흐니 그려도 벗
디 아녀 열고 데디 아니하니 중곳 아니면 엇디리(무인년 4월 24일)

인용문 <6>에는 조카가 40여일간을 열이 올랐다 하면서 이상하게 귀밀에 구멍이 나는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조카를 걱정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이날의 기록은 종들에 대한 작자의 기본적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바삐 떠나는 피난길에서 겨우 몸에 입은 옷만 걸치고 갔는데도 벗지 않고 열고 데지 않고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종들의 덕택이 아니었겠느냐는 이 술회에서는 작자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는가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종들을 단순히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자신에게 예속된 존재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가능하게 하여주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7>

○ 초수 성 정뇌경 성·복의 가 도녀오시나 그 일가 정소를 침각거
도 그이구이 업소니 내 지비 죽는 조식은 그려도 혼이나 업거나와 그
일가 설우미 아무라타 업소니 타루호노라 사는 니첨디 와 둔녀가시
다 남도수도 와 둔녀가다 뇌의원 화의 후 경연하시고 죄문 후에 드
르시다(기묘년 5월 4일)

인용문 <7>은 영감이 鄭雷卿의 成服祭에 다녀왔다는 사실과 정뇌경의 죽음에 대한 작자 자신의 감회를 기록한 것이다. 정뇌경은 작자의 남편인 남이옹이 소현세자를 모신 宰臣의 자격으로 심양으로 갔을 때에 司書로 함께 청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조선인으로 청나라에 아부하여 조선에 대해서 반역적인 행위를 일삼던 매국노 정명수와 김돌 등의 죄상을 극간하다가 도리혀 청나라 형부에 불집혀 사형을 당한 인물이다. 그래서 작자는 '내집에서 죽는 자식은 그래도 恨이나 없거니와 그 일가 설움이 어떠할까

보냐'고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술회하고 있다. 뒤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작자 자신이 다섯이나 되는 자식을⁷⁾ 모두 자신보다 먼저 잊은恨을 간직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쉽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신도 죽은 자식들의 일이恨에 맺혀서 한 때도 그 자식들을 잊은 적이 없으면서도 그래도 자기 자식들은 집에서 죽었으니 이역만리 타국에서 자식을 잊은 정뇌경 일가의恨에 비하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자신보다 남의 처지를 먼저 고려하는 따뜻한 마음씨가 없이는 쉽게 나올 수 없는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8〉

○ 초이 청 동궁이 드러가시니 우리 정수도 이러커둔 우흐로서
 빠디 엇더호오신고 엇된 시절이 번후여 이리커뇨 애닮고 설운 이리
 었다 언양군 부인 너산 가시니 가 보읍고 오다 어제 흥명일되 심양
 가노라 와보고 가시니 누띄 일 고디 아녀 고이 업시 굿브다 어울미
 둑산틱 누려와 둑 내 화 우려 가시니 괴운이 설워(경진년 4월 2일)

인용문 〈8〉은 청나라로부터 잠시 귀국하였던 소현세자가 다시 심양으로 돌아가는 날의 슬픈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어찌된 시절이 변하여 이렇게 되었느냐'고 한탄하면서 참으로 '애닮고 서러운 일이다'라고 자신의 감회를 말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슬플 때에야 임금님과 왕후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고 하는 술회에 이르면 신분을 초월하여 자식을 이별하는 부모의 마음을 미루어서 읽어낼 수 있는 작자의 인간적 깊이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의사촌이 귀양가 있는 남편을 만나려 여산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그 댁에 가서 인사를 하고 왔다는 사실 역시 쉽게 보아넘길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심양에 억류되어 있는 남편을 만나려 간다고 들른 친지의 부인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술회는 자신도 역시 남편을 이역만리 심양으로 보내고 1년반이나 애타게 기다려 본 경험이 있었던 작자의 입장에

7) 인용문 〈31〉 경진년 1월 11일 참조.

서는 너무도 절실한 감정이었을 것이다.

〈9〉

○ 넘눅넘칠 청 이날 정수의 예조판서 후시니 티주 갈 일로 그이
업소니 벌화 업순 후는 슈족이 업시 인는 사롬이되어 디내다가 천
남이 주란 후는 온갓 이의 이득고티 잇다 떠리 보내게 되니 이런 이
리 업서 후노라 낸돌 첨주고티 녀기며 켄돌 덕퇴라 후랴 이리 늙고
병니에 이서 다시 보디 물흘가 그이 업서 후노라(경진년 4월 26,
27일)

인용문 〈9〉는 더욱 절실한 감정의 표현이다. 남편이 예조판서에 임명됨으로 해서 친자식같이 데리고 있던 첨자식을 심양에 인질로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안타까운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⁸⁾ 남편이 예조판서가 된 것은 기쁜 일이겠지만 그 일 때문에 친자식같이 데리고 있던 첨자식을 또 머나먼 심양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니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정실부인과 첨의 관계란 원만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니 그 첨의 자식인들 곱게 보기 어려웠을 것은 人之常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자는 자신있게 '낸들 저를 妻子라고 여기며 전들 나를 큰 어머니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말하면서 늙고 병든 자신이 그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 작자는 여인으로서는 가장 견디기 어렵다고 하는 처첨간의 갈등도 초탈하고 있을만큼 따뜻한 인간미의 소유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작자가 그저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은 앞에서 본 趙絅의 碑銘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8) 병자호란 후에 조선의 世子와 大君, 그리고 三公六卿의 적장자는 심양에 인질로 두게 되어 있었다. 작자의 남편인 남이옹은 작자와의 사이에 난 적자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妻子가 대신 인질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작자의 남편인 남이옹이 경진년 3월 11일에 정이품인 형조판서로 있다가 종이품인 대사헌으로 임명되었는데, 이 날짜 일기를 보면 '천의는 대수현이 민망터니 이번은 이리 쇠원훈 이리 업소니 비록 후의 가나 안죽 죽이니 깃브미 만만하다'라고 하여 품계로는 비록 더 낮아졌으나 質子를 보내는 것을 면하게 된 것에 대한 작자의 안도하는 술회가 나오고 모두들 그 일을 치하하러 왔다는 웃지 못할 일이 기록되어 있다.

3. 恨많은 女人

이상 몇 개의 인용문을 통하여 이 작품의 작자인 남평 조씨는 법도가
몸에 밴 대가집의 부인이면서도 남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인간미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어
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수필 작가로서의 남평 조
씨는 그런 정도에서 이해하고 말 수 없는 존재이다. 아무리 따뜻한 인간
미의 소유자였다고 할지라도 작자가 아무런 부러울 것 없는 대가집의 부
인이었을 뿐이었다면 수필문학으로서의 이 작품이 줄 수 있는 감동의 양
은 훨씬 줄어들 수 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정작 이 작품의 가치를 더해주
는 것은 곁으로 보기와는 전혀 다르게 작자인 남평 조씨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恨많은 삶을 산 한국의 한 어머니였자 아내였다는 사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작자인 남평 조씨는 선조 갑술년(선조 7년, 서기 1574년) 9월 26일에
태어나서⁹⁾ 인조 을유년(인조 23년, 서기 1645년)에 72세로 죽었다.¹⁰⁾ 따
라서 작자는 10대의 후반부터 20대의 중반에 걸쳐서 임진왜란을 겪었고
60대에는 또 병자호란을 겪었던 분이다. 조선 500여년의 역사에서 가장
비참했던 두 차례의 전란을 몸소 겪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작자의 삶이 그
다지 평온하지는 못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작자는
우리 역사의 가장 불행했던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작자의 삶의 깊이와 이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더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병자일기〉는 아마도 병자년(인
조 14년, 서기 1636년) 12월 15일부터¹¹⁾ 경진년(인조 18년, 서기 1640년)
8월 9일까지뿐이기 때문에 주로 병자호란을 겪은 내용밖에 없지만 이 부
분만으로도 작자의 개인적 삶의 고뇌와 그 고뇌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에

9) 이 사실은 〈국조인물고〉와 〈의령남씨대동보〉, 그리고 본문의 기묘년 9월 26일자의 기
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10) 이 사실은 〈국조인물고〉와 〈의령남씨대동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1) 제 1면이 어느날의 기록 중간부터 남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12월 15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매일 기록을 남기고 있고 다음날의 기록이 12월 16일
인 것으로 보아 12월 15일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는 별로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미 예순을 넘긴 나이에 갑자기 닥친 전란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밤중에 피난길에 올라서 남편의生死도 모르는 채로 無人島를 전전하면서 갖은 고생을 겪다가, 겨우 난리가 끝나고 나자 남편이 심양으로 끌려갔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남편의 안부가 궁금하여 애를 태우면서 1년 반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 작자였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남편이 심양에서 풀려나 돌아온 후에는 다시 친자식같이 데리고 있던 청자식을 심양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작자는 4남 1녀를 놓았지만¹²⁾ 참으로 불행하게도 모두 일찍 죽고 말았다. 아들 둘과 딸은 아마도 어려서 죽은듯하지만 두 아들은 각각 13세, 25세까지 길렀다가 젊어버리고 말았다. 13세에 죽은 장남은 결혼도 하지 않고 죽었지만 25세에 죽은 아들은 아내가 둘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도 하나 없이 계유년(인조 11년, 1633년)에 夫婦가 모두 한꺼번에 죽고 말았다. 그러니 작자의 憤이 얼마나 가슴속에 쌓였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작품이 썩어진 시기가 그 아들과 며느리들이 죽은지 불과 3-7년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런 것이다. 남편이라도 곁에 있다면 좀 나으면만 남편은 멀리 심양에 억류되다시피 되어 있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였으랴. ‘어쩌다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가지 많은 시절도 보느냐’고 한탄하면서 ‘한시 바삐 죽기가 소원’이라고 하는 작자의 술회가 너무도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닿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0〉

○ 십칠일 새도록 걸여니 서리과 눈이 물우희 오로 어려 청회
큰길의 다두루니 군병이 오로다 호여놓 청회 짜곤길로 오다가 거로
쯤 두리치 어둡과 난추 천남이 길 그릇 드러 일코 아적휘 되도록
물어드니 길마다 피란인은 무궁하고 길히 여러 고두로 나시니 아무
드러 잔 줄 몰라 일가 사룸이 동동굴러 모다 애를 뼈고 무인 드러
도반하고 촘을 다 헤텨 어두되 물어더 깁깁 빛망키를 다 니루랴 그러구노
라 하니 청풍다히 길흔 느저시나 죠인서 복명 도적이 불석 그다히로

12) 인용문 〈31〉 경진년 1월 11일 기록 참조.

가다 허니 심심도 가다 말라 허여 높 친위 감찰되으로 츠자 드러가니
보서 나지나 계여고 일흔 사륙은 지금 물어더 우리 힘친 계 가 들고
계 사륙 모도더 나 어드니 저희도 새도록 길 너 아직 밥도 몰먹고 힘
초를 벼나시니 애를 타 친위 고을 알찌 갔더라코 어디오나 불서 거의
져녁때라 그날 쪘으려 서른 애빠 디내고 청풍은 그러타 허여 감찰되
일정과(병자년 12월 17일)

인용문 <10>은 일이 급하게 되었으니 짐불이 등은 생각하지도 말고 즉시 몸만 빠져나와 어서 청풍으로 피난을 가라는 남편의 급한 전갈을 받고 한밤중에 황급히 피난길에 올라 서리와 눈속에서 밤새 피난을 가다가 무수한 피난민들 속에서 걸어오던 종들과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한낮이 되도록 찾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심정을 기록하고 있다. 한낮이 되어서 겨우 잃어버렸던 아이들은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찾았지만 이미 청나라 군사들이 청풍쪽으로 갔다는 소문에 겁이나서 그쪽으로는 피난을 가지도 못하고 낭패한 사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길마다 피난가는 사람은 무궁하고 길이 여러 곳으로 났으니 어느 곳으로 갔는지를 몰라 온 집안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모두들 애를 쓰다가 마을에 들어 아침밥을 먹고 종들을 다 흘어서 찾았지만 못찾으니 갑갑하고 민망하기를 다 말하랴’라는 구절에서는 당시의 피난길의 혼란상과 아이들을 잃은 당혹감이 잘 드러나 있다. 잘라서 말하기를 어렵지만 아마도 우리 문학사에서 이보다도 더 절실하게 병자호란의 비극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나 대목은 드물지 않을까 한다.

<11>

○ 십칠 아직의 물고의 누려 대를 그리오고 지어간 촌밥을 일정이
술술이 논화 먹고 통이과 어산이 대를 빙고 연장이 업서 갖가수로
이간 길의에 문 헉나흘 내여 명막의 집고티 움흘 무드니 쟁대님 씰
고 대님흐로 니여 세 되 늦침침 얼내히 그 안해 드러 새아고 종들은
대를 뛰여 막을 허여 의지코 디내나 물 업순 무인되라 대수피 가 눈
을 그려 노거먹고 당진서 둑이 등히 알파 몯와 절이 헝고 오장에 양

식 디허 나루다 바다물의 아이시서 밥을 흐나 모든 낭반들 피란호니
 거러의 물을 나가 기리오되 우리 힝추는 거러도 업고 그릇도 업소니
 흔 그릇 물도 어데 몰머그나 둘야의 산성을 부라 통곡흐고져 무온의
 츠마 나를 디내니 인성이 언메나 혼고 구들순 인명이니 아디 몰게라
 일사이 혼 주식을 다 업시코 참혹흐여 설워흐 더니 이때는 다 니저
 다만 산성을 성각고 망국등의 나라 이리 되신 이를 부녀의 아몰 일
 이 아니로되 엇디 아니 통곡통곡 흐리오(정축년 1월 17일)

인용문 <11>은 당진으로 피난하였다가 청나라 군대가 근처까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밤중에 길을 떠나 竹島라는 無人島로 피난하던 날의 기록이다. 밤을 새워 배를 타고 겨우 아침에 무인도에 닿아, 연장도 없이 가까스로 대를 베어 그것으로 겨우 옻막을 치고, 먹을 물이 없어 대숲의 눈을 녹여서 마시고 쌀조차 셋을 물이 없어서 바다물에다 겨우 애벌로 쌀을 셋어 밥을 해먹고 견뎌야했던 고생스러운 피난살이의 쓰라린 경험을 표현한 것이다. 같이 피난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거룻배로 나가서 물을 길어다가 먹는데 작자 일행은 거룻배도 없고 그릇조차 없어서 한 모금의 물도 얻어 먹지 못하고 오직 山城쪽을 바라다 보면서 통곡할 수 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 고통은 오히려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육체적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남편과 죽은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사무쳐만 갔던 것이다. 죽은 자식들에 대한 이러한 애듯한 심정이 작품 전편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소재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12>

○ 스모이를 청 밤의 대설 이히 거의 진흐여 가니 심양 흥추는
 어누날 부랄고 아춘이면 히님을 티와다 비옵고 둘불근 재면 두님씩
 비우와 텐디일월생신고 절흐여 비오나 그러나 정성이 브죽흔가 감터
 을 아니 흔시노가 평심의 하누님 원망흔은 말을 입의 내디 아니하고
 평심의 사오나온 일을 아니코져 흔더니 혼 주식도 업고 이리 뛰양

가슴을 서기니 노포시나 노포시나 솔펴보소서(정축년 11월 22일)

〈13〉

○ 초구 청은 너嵬워 고제라 새로이 싱각해이니 고이업다 남진
신 와 계를 디내니 저든 사롭동이 엇디 일죽 인세를 뼈나 혼 주식도
업시 제후리도 업순고 아무 일의 다드라도 아니 설운 이리 업수니
총마 디내나 내의 간담이 언메나 서건는고 조창원이 통워로서 오니
난리후 이리곰 만나보니 고이업시 반갑다(정축년 11월 9일)

〈14〉

○ 망일 도음만청 니안 밧 보리 갈라 쇠 둘 사롬 열 보리씨 열연
말 가져가다 쁨의 넝감도 보읍고 주근 아기내돌 보되 어린 재고티
뵈여 텐겐디 두상인디 분번티 몰하고 머리 빗겨 다하 뵈며 반가와
흐다가 신니 저희 정녕이 업디 아녀 날을 뵈되 얼운 얼굴을 뵈디 아
니후니 설운 정을 다 나루랴 어엿블샤 내주식돌 앙가을샤 내주식돌
시걸이 이러하다 혼나하나 이시면 이리 내몸이 외롭고 설우랴 미양
간답을 벼하는 듯 톡톡하니 싱각고 설워해며도 홀 이리 업수니 내 모
요을 내 위로 혼여 이리 혜고 더리 혜여 그리타 내 주식이면 나를
못고 주그런마는 스물다섯 히 나를 빌려 누의 업순 모지 되여더니
설이 여하니 상인의 말로 전세죄로 이러한가 이심의는 그리 사오나
온 일을 말고져 혼는 내 모요이로되 엇디 하늘히 그리 보서 무디호
상사롭도 주식이 만호되 이러커뇨 굽굽흔 저기어둔 공번후신 하늘흘
원망하고 일당 전심의 내 죄련가 혼 시 혜는 이내 헤이 술위로 다시
로랴 등방 염하고 통신이 쇼쥬하고 압난 술마다가 준다(무인년 2월
15일)

〈15〉

○ 초팔 청 문안 오놀이 별좌의 싱일이라 차례하니 무어술 흄향
흔고 괴유년 나하 경수롭던 일이 혼 쁨이 될 줄 알리오 엇디 이십오
년을 내 주식으로 빌려겨셔 모주의 운정을 일묘의 업시호 누뇨 아이
고 아이고 창턴아 창턴아 홀 쟈롭이로다 슬프다 나곳 주근 휘면 정

성으로 뉘 잣이나 브어 노홍고 강진수 모부인 상신 나시네 아들 두고
주고시누니 오죽한 팔자랴(기묘년 11월 8일)

인용문 〈12〉는 연말이 점점 가까워지자 더욱 남편과 죽은 자식들이 생각나서 가슴 아파하는 작자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아침해 돋을 때와 저녁달 돋을 때면 해님과 달님을 향해 절하며 벌고, 평생을 하늘 원망하는 말을 입밖에 내지 않고 사나운 일이라고는 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으나 한 자식도 없이 이렇게 마음을 썩이니 높으시나 높으시나 굽어 살펴 달라고 하는 대목은 단순한 축원이 아니라 그대로 절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용문 〈13〉은 조카를 데리고 죽은 며느리의 제사를 지내면서 어찌 자식도 하나 없어서 제사 지낼 사람조차 없느냐고 한탄하는 대목이다. 어떤 일을 당해도 슬프지 않은 일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자신의 간담이 얼마나 썩었겠느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인용문 〈14〉는 꿈에 자식들을 보고는 복받치는 설움에서 ‘상사람들도 자식이 많은데 어찌해서 자신은 한 자식도 없느냐’고 한탄하면서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필시 자신이 전생의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불쌍할사 내 자식들 아까울사 내 자식들 시절이 비록 이러하다고는 하지만 하나라도 있으면 내 몸이 이렇게 외롭고 서러우라’라는 대목은 直說의이라서 더욱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흔 시 혜는 이내 헬이 술위로 다 시르랴’라는 대목에 이르면 작자의 가슴속에 맷힌 恨의 무게와 깊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인용문 〈15〉는 죽은 아들의 생일에 차례를 지내면서 자신이 죽은 후에는 누가 죽은 아들을 위해서 정성껏 술 한 잔이나마 부어 놓겠느냐고 탄식하는 대목이다. ‘아이고 아이고 창천아 창천아’라는 절규와, ‘아들을 두고 죽은 강진사의 母夫人은 오죽이나 좋은 팔자냐’라는 넋두리가 그대로 가슴에 와 닿는듯하다.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런 부려울 것 없는 당당한 대가집 부인이었지만 작자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까지 거대한 恨이 용어리져 있었던 것이다. 그

리고 그것은 어서 이 절곡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다음 인용문들이 이러한 절박한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16〉

○ 망일 청 새배 문안 후 의금부 좌의 후 형님 반흔 맛조이 가
께서 니판서덕의 가 약죽 잡습고 밤들개야 오시다 형님 다시 몰뵈온
일과 신죽 드르시니 슬프오미 고이 업습고 내 인식 오라디 아닐가
시브니 인세에 언며를 이실 거순 아니로되 하 거죽거시니 비감호미 고
이 업고 다만 큰몸이 태산 고투시니 슬쿠지도 아니후나 이리 범이
만하고 심회 편티 아니후니 주근 조식률 침각기눈 시로 니준 적 업
고 인간식 속절업순 혼호미로다(기묘년 9월 15일)

〈17〉

○ 넘팔 도무 그적과 덕경이 오다 전의 봇다면 기령 이경의 목
팔십삼 명 제게 농수치 일 섬 잇던듸 무목호니 십일 명 흐여왔다
오후의 못형님 부음이 오니 고이업고 슬프미 아모라타 업다 둠침님
네단 업소시니 이제는 내 추례 고투니 조식도 업시 이서 시절이
아모라 호나 넝감 평암호신 빼 으서 죽고져 원이나 다시 몰나을 고
디니 일번 슬프다 이날 닉의원 좌의호시다(기묘년 7월 28일)

〈18〉

○ 초오 청 텐계 그일이라 디내니 엇디(5자 정도가 마모로 판
돌불능임). 일주거 이리 내 간담을 빙오는고 내 나히 복서 뉴심뉴색
오 부비 둠거호완디 조십구년이라 호 조식이나 있고 우리 이리 므
던호 거서로된 미양 두립고 무셔우니 미일 으서 죽거지이다 축원호
라 오늘 드려 나오시다(기묘년 4월 5일)

인용문 〈16〉은 손위 동서가 죽어 그 返魂祭를 지내던 날에 느낀 심정을 적은 것이다. 남편이 귀한 몸이 되어 있으니 겉으로는 하나도 부러울 것

이 없는 것 같아도 늙고 병든 몸으로 자식들 생각에 애태우니 인생이 한 스럽기만 하다고 솔회하고 있다.

인용문 〈17〉은 형제들도 모두 죽고 이제는 자신의 차례 같으니 그나마 남편이 편안할 때어서 죽기가 소원이나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리니 일변 슬프다고 솔회하고 있다.

인용문 〈18〉은 죽은 아들의 제사날을 맞이하여 느끼는 새삼스러운 슬픔을 기록한 것이다. 어찌 일찍 죽어서 이렇게 간답을 타게 만드느냐는 솔회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나이 이미 66세나 되었으니 살만큼은 살았고 부부가 동거한지도 49년이나 되었으니 남들이 부러워할만도 하다. 그러나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 때문에 작자는 항상 두렵고 무섭다고 하면서 매일 어서 죽게 하여 달라고 소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4. 낙천적이면서도 끈질긴 성격

그러나 작자인 남평 조씨는 이렇게 恨많은 여인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인 특유의 낙천성과 한국 여인 특유의 끈질김의 소유자이기도 하였다. 작자는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매사를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심양에 억류된 남편의 무사귀환을 위해 서는 정성 드리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

○ 넘삼 심진수 와 유무 드리신다 당진읍니 북문밧 쪘 쥬인후여
오니 전죽인 박상의 집은 왕손이 고울 드려 겨시매 아속이 개 왓더라
박상이 와 유무 드리더라 이날 의봉이 외남이와 셔울로서 오니 어려운
때에 슈고호던 종과 그트랴 혜여 그리 뼈더던 이리 급히 과심하나
그려도 추자오니 두라나는 종도 이시니 엇디리 시브다 (정축년 2월
23일)

인용문 〈19〉는 난리통에 급히 피난하는 와중에서 뒤따라 오지 않았던 종들 가운데 두 사람이 난리가 끝나고 나자 뒤늦게 나타난 것을 보고 느낀 바를 기록한 것이다. 어려운 때에 주인을 버리고 갔던 종들이 극히 꽤

씹하기는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달아나버린 종들도 있는데 그래도 주인이라고 다시 찾아오니 어떤가 싶기도 하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작자의 따뜻한 인간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매사를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작자의 낙천적 성격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

○ 칠일 씀의 넝감 보읍고 가져가신 거우로를 서른 보아 반기오니 수이 나오시는 일이로다 혼자서 히몽호라(정축년 6월 7일)

〈21〉

○ 십륙 풍음 씀의 넝감 보읍고 말솜초다가 문득 하늘 티와다 보니 하늘문이 마치 남대문고티 크게 뜯 터 그 좌우의 괴이호 대궐고문 지비 풍누각구를 장히 고쳤고 선관 고문 사漏이 서너히 악자서 뜯 악 고문 거슬 웃고 누리터높 바다보니 마치 물건 거시 방미조마콤 흐되 괴이호거높 내 절하고 바다 넝감색 밧주와 뵈니 괴특이 길상되라 넝감이 동궁 꾀와 본국의 수이 도라오실가 호노라 이 쫓꾼 후는 더 옥 탠디일월성신식 아니 축원호을 날이 업고 아직 히도를 제과 둠으로 제 비와 어는 날 무심히 디내오리 씀이 괴이호니 무용의 두둔하여 디내노라(정축년 9월 16일)

〈22〉

○ 초팔 청온 씀의 업수신 동침님내도 보읍고 샤곡모님도 뵈옵고 넝감도 보오니 괴특호 학 고문 즘심이 춤추는 듯 넘노는 듯하다가 넝감이 손조 그 즘심을 찾기시니 부리과 밭이 겁던 거시 불그물이 희여 다리 불기 광치 고 침호 듯하여 그 즘심이 깃거호며 춤추고 말을 흐드려 그 말은 어디 몬홀러라 상서의 이리 이서 이런가 괴특다 수이 나오실가 호노라 밤이면 등화로 되하여 밥드도록 춤을 일우디 몬하나 날로 등화 물고 도호니 든든하여 호노라 오늘 별좌의 성일이라 차례하고 죽하님내과 진수 다 엊잔식 자시다 내이 정식 엇더홀고 슬픈 정과 설운 무용이 끄러딜 적이 업도다(정축년 11월 8일)

인용문 〈20〉·〈21〉·〈22〉는 모두 꿈을 꾼 내용이다. 작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길조로 보이는 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나름대로 좋은 징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낙천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용문 〈20〉에서는 남편이 가지고 간 거울을 반갑게 함께 보는 꿈을 꾸었으니 쉽게 돌아오리라고 기뻐하고 있으며 인용문 〈21〉에서는 꿈에 仙官들이 풍류기구를 갖추고 자신에게 상서로운 물건을 내려주셨으니 필경 남편이 쉽게 돌아오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인용문 〈22〉에서는 상서로운 鶴 같은 짐승¹³⁾을 남편이 셋기니 그 짐승이 기뻐하더라는 꿈속의 사실과 등불이 나날이 맑게 보인다는 사실에서 필시 상서로운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23〉

- 십팔 씀의 고운을 불평하여 혹시는 듯하여 보니 무별당수
비세세나 누리실 일이로다 야우년동(정축년 9월 18일)

인용문 〈23〉은 위의 인용문들과는 그 성격이 약간 다르다. 꿈속에서 본 일은 결코 상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 작자는 '꿈은 현실과는 반대'라는 민간의 해석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작자의 낙천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인용문들은 다같은 꿈인데도 상스럽지 못한 꿈에 대해서는 그저 '잡몽이다' 정도로만 기록하고 만 다음 인용문 〈24〉 같은 경우와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4〉

- 초수 청 오늘 모자 둘히 가 삽고 집종 나무니 고기자비 가서
현계제에 빠져온다 밤금이 넝갑도 보오나 잡몽이 번잡하다 놓쉬 듯
골 논 얼너말디기 쪼 두말디기 병작으로 빠 가져가다(무인년 4월 4일)

13) 작자의 해석에 의하면 이 짐승은 곧 소현세자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또한 다음 인용문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자는 남편의 무사귀환을 위해서 어딘가에 정성 드리기를 계획하지 않았음도 주목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당당한 대가집의 부인이었지만 그 이전에 작자는 한 사람의 꾼질긴 한국 여인이었던 것이다. 정성껏 분향을 하고 바깥뜰에다 배석을 깔고 엎드려 있다가 밤중이 지나서 방에 들어와 옷을 입은 채로 졸다가 꿈을 꾸니 상서로운 징조가 있었다는 것은 한국인의 심성으로서는 그저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그래서 ‘디내던 이리 구벼 보신가 시벼 ㅋ이업시 짓브다’라고 하였고 과연 그것이 효험이 있어 그날 남편이 돌아오기로 되었다는 기별을 받았던 것이다.

<25>

○ 칠일 청 샤곡모님 뵐읍고 찬상호여 즐겨하시고 짓개라 ㅎ
 시니 이날 너산서 디내던 이불 얹고 이서 몯호여 출화 두고 왓더니
이날 분향호읍고 밧뿔의 빙석 굽고 업더여다가 밤됨 후 드러와 옷
니븐재 조우더니 쓰 닐급 반상을 흘여노코 짓거라 ㅎ시며 말숨 만하
하시고 넴감도 보으니 흐뭇겁고 디내던 이리 구벼 보신가 시벼 ㅋ
이업시 짓브다 넴감 오시 더워호시는가 시브거늘 밧비·호여 보고
텅디기 거려히 소리 듯고 이런 땐도 보안며 ㅎ며 산희 드러와 물콤
진축호를 보고 일개 다 즐겨뵈니 늦도록 무용의 짓보고 두드호여 씀
말을 모다두려 너루더니 오후의 월탄서 유무 오니 목계 너진수식로
서 넴감 나오시는 고별호여 겨시니 이런 쇠원코 짓브읍기롭 엇디 다
너루리 도로혀 무용이 어린 듯 취호 듯호니 씀을 싱각호고 그지그지
업서 ㅎ나 동면공 되와 나오시면 더욱더욱 죽홀손가(무인년 2월 27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작품의 작자인 남평 조씨는 한 사람의 수필가로서 갖추어야 할 깊이 있는 인생 체험을 두루 하여 본 여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볍도가 몸에 밴 당대의 당당한 대가집 부인이면서도 남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다 볼 수 있는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개인적으로는 떨쳐버릴 수 없는 恨의 용어리를 가슴속에 넣고 스스로를 채찍질 해야만 했던 한많은 여인이었으며 그러면서도 한국

인 특유의 낙천성과 끈질김을 두루 갖추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이 썼어진 것이 이미 작자의 나이 예순을 훨씬 넘어선 원숙기였다는 사실도 이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더해주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III. 문학적 표현

하나의 문학 작품에서 작자의 성실하고 깊이 있는 인생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 체험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문학적 표현력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허구성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개인적인 일기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기서는 이 작품에 나타난 문학적 표현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1. 真率한 표현

이 작품이 私家의 부녀자가 쓴 일기라는 사실에서 이미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작품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감동도 바로 이 진솔한 표현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허구로서의 문학 작품이 그 가공의 진실을 통해서 독자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가공의 진실이 아닌 작품 역시 독자에게 커다란 문학적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런 허구적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문학 작품이 훌륭하게 성립된다는 사실과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이 독자들에게 훨씬 더 깊은 감명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쁨을 얻게 된다. 물론 그것이 350여년이라는 시간적 거리가 있고, 당대의 생생한 삶의 자취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프레미엄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진실이 주는 감동의 양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으리라고 속단하기는 곤란하다. 진실이 주는 감동의 깊이는 그러한 시간의 거리를 뛰어넘어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작품은 개인적인 일기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사건들로 접철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사소한 사건들이지만 그것이 한 인간의 진실이라는 것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며 '아,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이구나' 하는 탄성과 함께 무한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작자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꿈속에서도 男女有別을 잊지 않을 정도로 법도가 몸에 밴 당당한 대가집의 부인이었지만 인용문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기별을 듣자 '이런 시원코 깃브 기를 엇디 다 니루리 도로혀 무움이 어린 듯 취호 듯하니 숨을 싱각고 그지 그지 업서호나'라고 하면서 기뻐 어쩔 줄을 모른다. 이 대목만을 놓고 본다면 누가 이 여인을 엄격한 법도만을 내세우는 조선시대의 당당한 대가집의 부인이라고 치부하며 더구나 나이 예순넷이나 된 할머니라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배운 상식대로만으로 판단한다면 이런 표현이 가능하리라고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작자가 얼마나 크나큰 憎의 용어리를 가슴속에 품고 견딘 여인이었으며 얼마나 많은 밤들을 남편 걱정에 지새웠고 꿈에도 그 안부를 걱정했던가를 이해한다면 남편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마음이 '어린 듯 취한 듯' 했다는 표현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6>

○ 초이 청 훙당논 일서말디기 덩쉬 쇼 호나 사봄 얼호나 가다 난
죄 흥판소티 사봄 셔울 갖다가 심양서 정월 넘눅호신 유무도 오고 목
슈찬 유무 보니 네감 나오시기 우흐로셔 나도 만코 공뇌 만후며 수름
더내여시니 남아모를 둔져 나오개 흐라 던교호시다 흐니 토은이 망국
망국 흐요다 이제야 채 식원호니 일가 경수롭 다 니루라(무인년 3월
2일)

〈27〉

○ 초오눅일 청 이론 남진 가홍 거제늘 니셔방티의 유무흐니 영
덕 괴별도 몰래라 흐고 담상 왔다 티질로 새아 알코 혼 경 춤도 몰자
나 정신이 엇더흐다 오늘 둘십골 논 날굽말디기 가다 쇼하고 총 여우
덩쉬하고 가다 노경국이 가홍왔다 괴별 드고 술 혼 병 가져와 유무
드린다 그늘 편계 싱일이라 잔 부어 노코 엇디 조식돌이 저희 내계
하디 내 저희께 후눈고 고이업다 룹신이 셔울 갓다가 효신의 솔이 보
니 스모흐룬날 유지 심양 가다 흐니 무온이 놀고져 흐예라(무인년
3월 5,6일)

〈28〉

○ 이를 청 통이 셔울 보내여 심양 괴별도 알고 하 소밥의 몽건듸
여 조괴나 바다 오려 보내다 나오실 괴별 업손 제논 가망이 업더니 유
지 가다 혼 후눈 무온이 도로혀 어린 아침 고투여 날마다 보라는 정신
고이업다 요수이는 화시는 불셔 디나고 녹음이 어뢰여시니 낸년의 시절
은 일티 아니호되 주근 조식들은 청녕이나 이시면 숙의나 나를 추자 아
니 보랴 흐노라 흐니 이리 외롭고 고단흔 적이면 더욱더욱 창각고 설워 흐
노라 어제 냉월서 혼인 더내니 난취 나을가 부라노라 륙이 일봉이 청풍
가다 세봉이도 인후여 브린다 제 할미 죽고 제 어찌개 용납디 몽흐니
쳐든 종을 브리랴 신평수 못아우님 유무 드린다(무인년 3월 22일)

인용문 〈26〉은 목수찬으로부터 남편이 귀국하기로 확실히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감격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남편이었으
니 귀국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체했던 것이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인용문 〈27〉은 남편을 귀국하게 하라는 임금님의 명령이 심양을 향해서
출발했다는 소식을 접했던 날의 기록이다. ‘스모흐룬날 유지 심양 가다
흐니 무온이 놀고져 흐예라’라는 표현은 지극히 당연한 표현이다.

인용문 〈28〉은 유지가 심양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이르지 않아서 도리혀 마음 줄이는 심정을 표현한 것
이다. 나오실 기별이 없을 때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 그냥 견딜 수밖

에 없었지만 나오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도리혀 어리석은 아 이처럼 날마다 소식을 애태게 기다리게 되었다는 술회도 인간이라면 당연한 감정이라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다음 인용문 <29>는 더욱 진솔한 감정의 표현이며 그만큼 감동적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29>

○ 초수초오 청 씀의 넝감도 보읍고 문밧모님 보오니 든든^ㅎ 옵다 오눌은 명일이라 쇠골 사תום이 다 드려 쉬다 일봉이 이남이 온다 흔니 단오계 디내고 음 거술 모음이 놀라와 밧비 무로란 흔니 넝감 월강 흔시다코 유무^ㅋ 가져오니 즐겁고 식원^ㅎ 미 아모라타 업서 봄이 공등의 오론 듯 놀가 시브니 엇디 다 괴록^ㅎ 흘리 연양부인 유무 비오개 별실 유무 남친수 유무 다 보고 진수는 당능 참봉^ㅎ 흘여 샤은^ㅎ 고능의 가노라 흔여시니 굽언 깃본 일 업다 광줘 종순 며조 이남이 가져오니 단말가오디로다 놀론^ㅋ 콩 너 말 가져오다 연안의 겸동의 술이 보니 정조 일닷 셈 쌀 공전 두 셈 평^ㅎ 셈 선물^ㅋ 쌀 서말가웃티 닷되는 초관 밧즙다 흔고 초관^ㅎ 드려다 흔다(무인년 5월 4,5일)

이 인용문은 남편이 드디어 압록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종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날의 감격을 표현한 대목이다. 나오게 하기로 결정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고 유지가 심양으로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남편은 청나라쪽의 사정 때문에 쉽사리 돌아오지 못하고 시간만 자꾸 흘러가고 따라서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만 있었다. 그러던 차에, 강을 건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으니 그 기쁨이 ‘즐겁고 식원^ㅎ 미 아모라타 업서 봄이 공등의 오론 들틈가 시브니’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거기에 무슨 법도가 필요하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애태게 그리던 지아비의 귀회 소식을 들은 한 지어미의 환희만 있으면 축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솔한 표현이라고 말해도 틀림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품에는 한 여인의 감정이 아무런 꾸밈없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다. 누구에게 보이거나 자랑할 것을 염두에 둔 기록이 아니기 때

문에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숨김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30〉

- 넘수넘오 우 헌법 김광현 의주티의 와서 늑석고테를 말라호
시다 혼 괴별을 드르니 고이업소며 빼던의 사용도 그리 업술사(정축
년 윤4월 24,25일)

〈31〉

- 초순일일 빙음만청 천남어미 오시에 아들 나타 넝갑모움이
우쭐우쭐 호시도다 나는 엇던 팔진 혼 뜰 내 아들 나하 종직도 업
서 디쳤고 나하 막하고 병이 드니 더욱 설워 혼노라 며누리 가니 더
옥 굿버흐노라 모리 증조과제를 뉴싱원되으로 출해보내여다(경진년
1월 11일)

인용문 〈30〉은 심양으로 간 사람들을 여섯 달만에 교체 시키기로 조정에서 의논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그 논의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남편의 귀국이 늦어지게 된 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다. 조정에 그렇게도 사람이 없느냐는 대목은 이 작품이 작자의 감정을 얼마나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용문 〈31〉은 媒室이 아들을 낳은 것에 우쭐우쭐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신세가 더욱 안타까워 서글퍼 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용문 〈9〉에서 본 바와 같이 친자식과 첨자식에 대한 차별마저도 이미 초탈하였을 정도로 작자는 따뜻한 인간미의 소유자였지만 그래도 역시 한 사람의 여인임에는 틀림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법도가 몸에 밴 대가집의 부인으로 이미 예순을 훨씬 넘긴 나이였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야 첨실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일 수는 없었을 것이 당연한 일이다. 더군다나 자신은 자식을 다섯씩이나 낳았지만 모두 잃어버린 처지이고 이제는 나이 많고 병이 들어 더 이상 출산한 가능성조차 없으니 그 설움은 더욱 커울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작자가 그러한 자신의 감정을 하나도 가식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이라고 하지 않

을 수 없으며 이 점이 수필문학 작품으로서의 이 작품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에는 우리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문학 작품에서 흔히 보아온 바와 같은 극도의 감정 억제나 가식적 표현이 아니라, 사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진솔한 표현이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인간의 삶의 진실을 가늠해 보면서 공감하는 커다란 감동이 있다. 남을 의식하거나 남에게 보일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개인적 일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진솔한 표현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 일기가 가지는 이러한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인용문 <32> <33> 등에서와 같이, 어떻게 보면 남에게 공개하기 거북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남편이 술에 취하여 마루에서 떨어져 얼굴 다친 이야기까지도 솔직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32>

○ 넘삼 정 니의원의 가 돈니시고 사돈되의 가 잠주^호고 오시다
니침의 와 다 엿잔식 잡습고 그날밤의 뒤보라 나시다가 마로의 누려더
낙상도 후시고 상히 다티시고 인^호여 니질로 주조 돈니서(무인년 7월
23일)

<33>

○ 초수 야설도음 밤비 오다 새배 문안 후 도전의 심도수 여^숙
식 새배 마로의 낙상^호시다(기묘년 11월 4일)

2.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필치

이 작품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필치로 되어 있다. 간결하면서도 섬세하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모순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써야할 말은 다 쓰면서도 군더더기가 붙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이 이 작품이다. 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작자는 대단히 세심한 성격의 여인이었고 기록벽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판단될 정도이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44면뿐이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서 일찍부터 계속 일기를 써오지 않았을까 추측된다.¹⁴⁾

〈34〉

○ 수일 새배 니경의 빅의 불나다 문밖 남참의 빅의 가 돈니셔 연
양군 빅의 돈니셔 취하여 드르시다 광주 환곡 선산 인마의 가 드려오
다 선산 어울며 와 취하여 가시다(경진년 윤1월 14일)

〈35〉

○ 십수 음오후 잠우 연양군 동작이로 나가시니 고이 업시 섭섭
굿브옵다 언머를 가겨실 거시 아니로되 인정이 엇더 흐다 호과 흐여 강
두의 나가시니 불서 건너겨시매 그 악쥬를 영안위과 강고의서 잡습고
취하여 드르시다(경진년 3월 14일)

인용문 〈34〉는 간결한 필치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새벽에 이경의의 집에 불이 났다는 사실, 남편이 문밖에 있는 친척인 남참의의 집에 갔다가 다시 연양군 이시백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는 취하여 들어왔다는 사실, 광주에서 가지고 오게 되어 있었던 환곡을 선산 원님의 종들이 말을 가지고 가서 가져왔다는 사실, 그리고 선산 원님이 저녁 무렵에 와서 취하여 가셨다는 사실까지를 군더더기 하나 없이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인용문 〈35〉에서는 날씨 하나를 기록하는 데에도 그저 ‘흐렸다’든지 ‘비가 왔다’든지 하는 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흐렸다가 오후에는 비가 조금 왔다’고 기록할 정도로 치밀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부분이 연양군 이시백이 假質사건¹⁵⁾ 때문에 충청도로 귀양을 가느라고 동작나루를 건느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를 전송하느라고 술과 안주

14) 제 1면이 어느날의 기록의 중간부터 시작되어 있다는 것이 유력한 증거가 된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원래 작자가 썼던 일기의 앞과 뒤는 제거되고 그 중간만 남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날짜별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난하는 와중에서 도저히 쓸 수 없었던 얼마간과, 남편이 돌아온 후 서둘로 옮겨와서 밀려오는 손님들 때문에 틈을 넣 수 없었던 며칠간, 그리고 몸이 몹시 아파서 기동이 불가능했던 중간의 며칠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기록을 남기고 있고 기록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뒤에서 왜 기록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기록 후 퇴고의 과정을 그쳤음이 행간에서 군데군데 발견된다.

를 장만하여 강머리에 나갔는데 연양군이 탄 배가 이미 나루를 건너가버린 후였기 때문에 그 술을 횃김에 영안위와 함께 강가에서 잡숫고는 취하여서 집에 돌아오셨다는 남편의 행적과 함께, 연양군이 귀양을 가게 되어 몹시도 섭섭하다는 자신의 감회, 그리고 연양군이 귀양 가게 된 것이 청나라와의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이며 이내 다시 돌아오기로 내부적으로는 약정되어 있었다는 역사의 이면적 사실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간결한 표현인가는 납득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36〉

- 십팔 도음만청 시수호 읍 뉴침원 참제 제후의 문안(기묘년 11월 18일)

〈37〉

- 열이틀 청풍 새배 샤온숙비호시고 의금부의 돈니서 현부 좌과 오후 비 시작하여 만히 오다 밤 새여오다(경진년 3월 12일)

인용문 〈36〉과 〈37〉은 이러한 간결한 표현의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용문 〈36〉은 아침에는 흐리다가 늦게 개었다는 日氣와 함께 이날 시사를 지냈다는 사실, 그 시사에 유생원이 참여하여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은 그 제사를 지낸 후에 대궐로 임금님에게 문안 가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용문 〈37〉은 날씨가 맑고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과 함께 남편이 어제 정사에서 대사헌에 임명되셨기 때문에 새벽에 대궐로 가서 임금님께 사온숙배를 드린 후에 의금부에 들렀다가 사헌부에 가서 좌기하셨다고 적고 있다. 또한 이날 오후에 비가 오기 시작하여 많이 왔고 그 비는 밤을 새워서 계속 내렸다는 사실도 덧붙어 있다.

15) 병자호란 후에 조선 대신들의 嫡子들을 심양에 인질로 두게 되어 있었는데 일부 대신들이 적자가 아닌 서자나 열손들을 인질로 보낸 것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다. 소현세자가 일시 귀국하였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어 완성부원군 최명길, 병조판서 이시백, 전판서 홍보, 남이공 등이 삭탈관직을 당하거나 중도부처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형조판서가 작자의 남편인 남이옹이었다.

3. 적절한 인용과 비유

이 작품이 가지는 또 다른 표현상의 묘미로서는 인용과 비유를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작자인 남평 조씨가 文才가 매우 넉넉하였다는 좋은 증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38〉

○ 넘팔 청 쏘 허리알키를 겹하여 종일 누어디내니 흔증곳 나면 봄병이나 나니 친실로 병든 즐싱의 푸리몽기란 말이 올타 초경은 후여서 귀란으로 고울로서 소동이 나니 온모이 일시에 드러치니 허무흔 일이로되 고울로서 방포와 두드리눈 소리 흔 뒤의 페디니 온모을 사롭이 소동하여 드러치니 밤을 새아 두립고 무서우나 행적 업순 이리로되 무몸의 놀라오니 이 엇된 시절이 가지가지 번이 나눈고 후노라 총을 다 외화 밤을 새아나니 대평시도 이런 번란이 있던가(정축년 7월 28일)

〈39〉

○ 넘칠 남성원 남진수 드러가시니 섭섭기 그이업고 뼈나는 길히 각각 머려가니 그 정회 아무라타 업다 반당의 가 주셔둬은 틴줌으로 드러가시고 우리 헝주는 하산하니 그리 몰가다 형데 서루 니벌하여 통곡하고 므스 일 와 이내 무몸을 새로이 설계 하눈고 보령셔 쇼쥬 두 병 벌좌둬 쇼쥬 두 병 허여 왓더니 너산서 반이나 모다 먹고 그 반 당의 와 김성원 울며 놀래 브르고 잔자바 진지하며 고울로 통워로 가리이다 아즈바님 오서든 셔울로 어마님 피와 올라가 다시 문사이다 하고 뼈나 형데 손목 쥐여 통곡고 여희여 서루 마상의 니벌하니 그 정식 과연 그이업다 길히 접접 멀고 그린 거시 몰뵈게 되니 이러하여 공명도 서세 여힐 게 나모수풀 뷔라 허닭다 그 일이 쉽각하여 몰뵈게 되니 마상의서 타루하고 그이업소니 엇더타 괴롭하리 늘고 병든 인심이 다만 흔 아울 엄벌하는 작이니 슬프고 설운 점을 엿디 다 괴롭하리 등심도 므더니 너기리 엇더고마는 엿디 우리 형데나 오라바님 겨실 적이나 누의 업순 등심둘고티 디내다가 오라바님 두 분 업수시고 다만 우리 형데만 이서 각각 경향의서 사

니 그이구이업시 설운 회포를 엇더타 허리 그 날 공쥐싸 유성 근처의 하
쳐하다(무인년 1월 27일)

인용문 <38>은 허리가 아파서 자신이 고생을 한다는 사실과 마을에서 귀신소동이 나서 밤을 새워 온 마을 사람들이 소동을 부리고 자신도 겁이 나서 종들을 모아서 밤을 새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 번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온몸이 아니 아픈 곳이 없이 다 아프다는 것을 ‘병든 짐승에 파리 모이기’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적절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귀신 소동이 나서 소란을 부린 일도 그 광경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를 정도로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용문 <39>는 서산에서 충주로 거처를 옮길 때에 자신의 친정동생인 주서댁¹⁶⁾이 멀리로 가니 만나기도 어렵게 생겼다고 미리 와서 하루밤을 같이 자고 다음날 함께 출발하여 오다가 중간에서 헤어지는 장면이다. 남자 형제들은 이미 다 죽고 이제 친형제라고는 이 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는 살아서 만날 기약조차 없이 헤어지니 그 섭섭함이야, 작자의 술회와 마찬가지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갈림길에서 헤어져서 점점 멀어져가는 동생을 바라다 보다가 나무수풀 때문에 그 모습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자 작자는 <삼국지>에서 유비가 徐庶를 이별할 때 멀어지는 서서가 벅드나무숲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 나무숲을 베라고 하였던 고사를 떠올리고는 그것을 인용하여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비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0>

○ 넘팔 청 삶의 샤직모님 보오니 턴계 아하적 얼굴로 보니 식여 흐
뭇겁고 낫브기 그이업수니 엇디 혼 주식도 업시 빙발을 비수며 슬프고
설워호며 주거도 어마님을 뵈와 간눈가 시브니 더욱 그이업다 침안희
열나믄 저비 조옹이 살기 쳐 누는 양을 보니 살기도 놓며 아누며 므내
여 머기는 일을 보니 인간 사료은 더 즐심을 불워호거니 엇디 아니 슬

16) 주서 벼슬을 지낸 김신행의 아내를 말한다. <창녕조씨대동보>에 의하면 작자의 친정 동생이다.

프며 설우리 혜아를 버들 사마 쇼일호니 이 사름돌곳 아니면 엇디호리 청풍 세미 공 세 필을 헤여 와시니 도로 쥬기도 이때 이리 그려도 노쥬간이라 인심을 뽐노라 두고 명오과 공도 씹 얼네말가웃 진임 점미 각 일두 헤여 왔다 오놀은 덩숴 안일을 낸후여 브티기나 제 헤여 기음이 무기게 되니 이도 알곡석이라 이를을 모도텨 열새홀 미여 준다 이도 품으로 미다(무인년 4월 28일)

인용문 <40>은 또 다른 적절한 비유를 보여주고 있다. 죽은 자식들이 그리워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처마밑의 제비들을 이용하여 설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죽은 자식들이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모양을 꿈에 보니 새삼스러이 설움이 복받치고 자신의 신세가 서글퍼지지 않을 수 없었는데, 마침 집안에 있는 여나믄 마리의 제비 암수가 새끼를 쳐서 그것을 안으며 먹이를 날아다 먹이고 하는 모양을 보게 되었으니 그 슬픔이야 더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집안회 열나믄 쟈뵈 조옹이 샷기 쳐 누는 양을 보니 샷기도 놀며 아누며 므내여 머기는 일을 보니 인간 사름은 더 즘성을 불워호거니 엇디 아니 슬프며 설우리'라고 술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식을 잃고 눈물겨워하는 자신의 신세를 더욱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이고 안아 보기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처마밑의 제비를 끌어들인 것은 참으로 적절한 비교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IV. 結 論

지금까지 조선 인조 때 남평 조씨가 쓴 〈병자일기〉에 대하여 그 수필문학적 가치를 논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이 작품은 필자가 앞선 논문¹⁷⁾에서 언급하였던 작자와 연대가 분명한 최초의 대규모 한글 필사본 私家의 일기라는 문학사적 의의 외에도 이 작품은 작자의 성실하고 깊이 있는 인생 체험이라는 측면과 그것의 적절한 문학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뛰어난 수필 문학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작자의 성실하고 깊이 있는 인생체험이라는 점에서는 작자인 남평 조씨가 당대의 당당한 사대부가의 부인으로 별도가 몸에 배어 있었으면서도 따뜻한 인간미의 소유자였고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恨많은 한국의 어머니이자 아내였다는 사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인 특유의 낙천성과 끈질김을 지닌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작품을 통하여 입증하였으며 문학적 표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난 온갖 사건들을 아무런 꾸밈없이, 그러면서도 인용이나 비유를 적절하게 구사하면서 간결하고도 섬세한 필치로 표현하였다는 것을 역시 작품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 작품에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확실히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의 진실이 있고 그것을 솔직하면서도 간결하고 섬세하게 전달하는 문학적 향취가 있다. 私家의 부녀자가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들을 근 4년간에 걸쳐 기록한 대규모 한글 필사본 일기라는 문학사적 가치 이외에도 이 작품은 그 작품적 수준에 있어서도 우리 수필문학사를 빛낼 뛰어난 작품 가운데 하나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17) 摘稿 ; 앞의 논문, 앞의 책 157-177면.